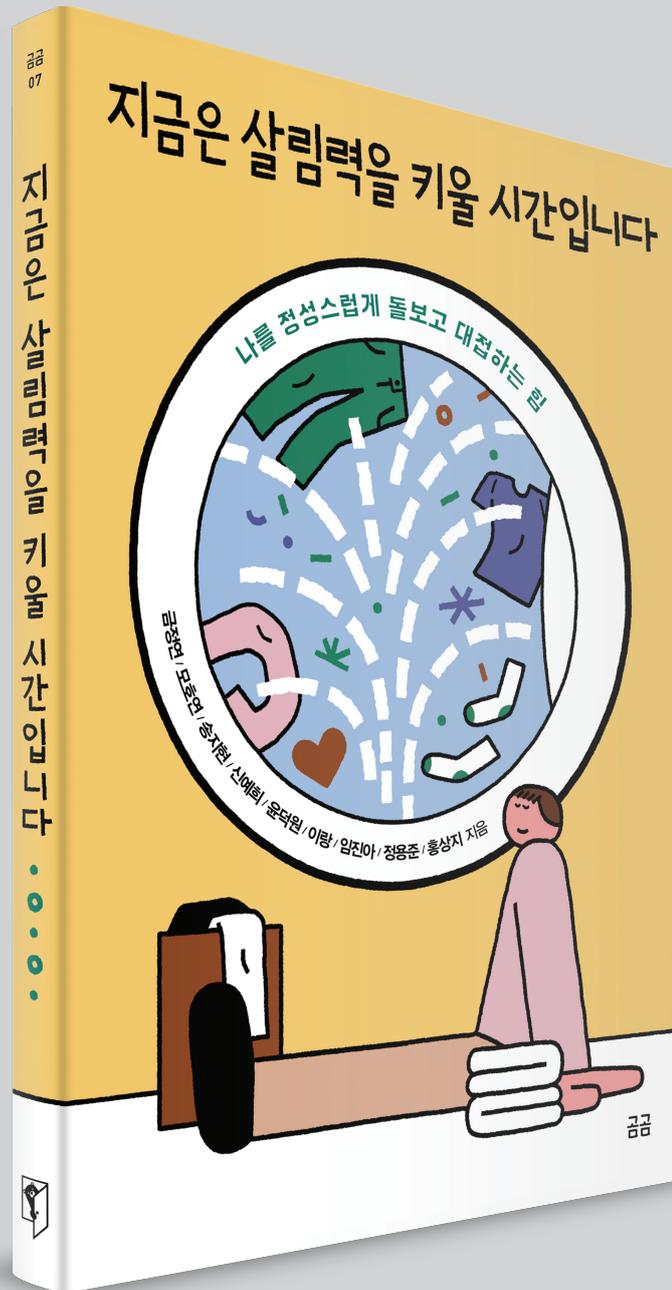


도장중학교 국어교사 김선산



분야

청소년 > 문학

청소년 > 생활/자기관리

키워드

#살림 #살림력 #나와우리를살리고돌보는힘 #회복탄력성 #일상루틴 #요리 #청소 #빨래 #책상정리 #만들기
#수리하기 #식물관리 #반려동물과함께하기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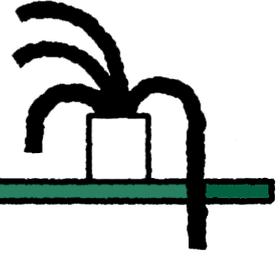
소설가, 뮤지션, 기자, 에세이스트, 서평가,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일하며 저마다 다른 방식과 취향으로 삶을 꾸려가는 아홉 명의 저자들은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두부를 굽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식물을 돌본다. 최적의 책상 컨디션을 위한 분류와 정리법을 고민하기도 하고, 함께 사는 물건의 쓰임이 다하면 새로운 용도를 고민하는 지극히 다정한 반려자이기도 하다. 어린이와 함께 생활한 후로 더 나은 일상과 세계를 만드는 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어른도, 고양이로부터 사랑의 아주 작은 방식부터 삶의 에너지를 배우는 집사도 있다.

금정연, 모호연, 송지현, 신예희, 윤덕원, 이랑, 임진아, 정용준, 홍상지 작가의 유머러스하고 진지한, 기발하면서 소소한 생활 속 무늬를 읽어 나가는 동안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사는 재미와 살림 재미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공개한 아홉 가지 살림 꿀팁 역시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고 싶은 초보 살림러들에게 든든한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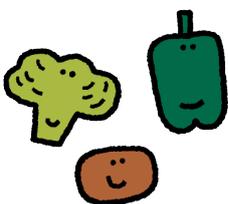
《지금은 살림력을 키울 시간입니다》는 어른이 아니어도, 어른이어서도 살림을 처음 배우고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어도 좋을 책이다. ‘홀로 서다’의 자립이 아닌, ‘나와 우리를 살리고 돌보는’ 삶의 가치를 전한다는 점 또한 이 책의 특별함이자 미덕이다. 당신이 어지름 요정이어도, 천하제일 똥손이어도, 우당탕탕 파괴왕이어도 괜찮다. 이제, 당신의 살림력을 키울 시간이다.



차례



- 1차시 ◆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두부
- 2차시 ◆ 나의 일상을 구석구석 돌보는 일, 청소
- 3차시 ◆ 제 세탁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 4차시 ◆ 사서 쓰기와 내가 만들기 사이의 균형잡기
- 5차시 ◆ 작은 ㄷ자 안에서 예술 회사 꾸려 나가기
- 6차시 ◆ 정신을 차려 보니 식물러가 되어 있었다
- 7차시 ◆ 작은 사람과 함께 넓어진 나의 세상
- 8차시 ◆ 고양이의 집사라면 무릎
- 9차시 ◆ 집과 함께 숨 쉬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남길 것



1차시 ◆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두부



내용 확인하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두부〉를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글쓴이가 “울고 싶지만 이미 많이 울어 더 울 수도 없는 이상한 밤”에 사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세요.(13~17쪽)

단계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2. 이 글을 바탕으로 두부를 먹으면 ‘이상한 밤’이 ‘평범한 밤’으로 변하는 이유를 요약해 보세요.(17~23쪽)

3. 이 글을 바탕으로 레이먼드 카버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의 줄거리를 정리해 봅시다.(18~20쪽) ※ 더 흥미가 생긴다면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 《대성당》(문학동네, 2015)을 찾아 읽어 보세요.

생각 넓히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두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글쓴이의 '두부'와 제과점 주인의 '롤빵'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2. 글쓴이가 '두부'를 활용해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어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3. 다음을 참고하여 현대인들에게 음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발표해 보세요.

누구보다 스마트하고 논리적인 당신, 혹시 TV 속 '먹방'이 나오면 돌리던 채널을 잠시 멈추고 TV에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가. 이것은 결코 창피해하거나 숨길 일이 아니다. 먹는 행위야말로 생존을 위한 가장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다. 하지만 우리는 어찌 된 일인지 마음 편하게 밥 한 끼 먹기가 쉽지 않다.

아침엔 출근 시간에 떠밀려 굶기가 일쑤이고, 점심때 회사 상사와 일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 아무리 비싼 밥이라도 그 맛을 제대로 느끼기 어렵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다. 퇴근 후 집에서 반찬이 몇 가지 없어도 고추장에 쓱쓱 비벼 먹을 때 그제야 한 끼를 제대로 먹는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도무지 무언가를 먹기 어렵다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밥을 먹는 것은 자신의 현재 심리와 직결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안부를 물을 때 “식사는 하셨느냐”는 말로 갈음하기도 한다.

출처: <방송계 스테디셀러 '먹방' '룩방'의 사회심리학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허기 달랜다>, 《월간중앙》, 2018.07.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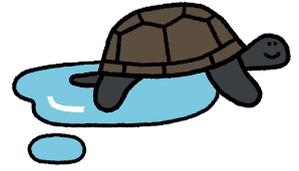
긴 글 쓰기

1. 음식과 관련된 경험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떠올려 보고, 다음 조건에 맞게 글로 써 보세요.

[조건]

- 맛, 냄새, 함께 먹은 사람 등 음식과 관련된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세요.
- 기억에 남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2차시 ♦ 나의 일상을 구석구석 돌보는 일, 청소



내용 확인하기

1. <나의 일상을 구석구석 돌보는 일, 청소>를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처음 가져 본 나만의 공간을 대하는 글쓴이의 태도는 3년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나요?(27~28쪽)

시기	태도
3년 전	
현재	

(2) 글쓴이가 '청소는 결국 돌아봄'이라고 생각하게 된 과정을 요약해 보세요.(31~33쪽)

Blank yellow area for writing the summary of the process.

(3) 글쓴이가 자신의 청소 방식을 '조용한 청소'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37~39쪽)

Blank yellow area for writing the reason for the cleaning method.

생각 넓히기

1. <나의 일상을 구석구석 돌보는 일, 청소>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우리 집의 청소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Blank yellow area for writing about household cleaning roles.

2) 자신이 생각하는 '청소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3) 다음 기사의 청소 노동자가 처한 노동 환경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고 발표해 보세요.

(...) 새벽 5시 작업복을 입은 김 씨의 일과는 18층 사무실 창문을 열고 밤새 짝 찬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시작됐다. 빌딩 내 쓰레기통을 모두 비우기만 해선 안 된다. 분리수거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시간 정도를 들여 분리배출을 끝내면 화장실 청소가 기다리고 있다. 직원들이 양치하러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김 씨는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물청소를 마무리하고 휴지를 교체했다.

하나의 업무가 끝나면 다른 업무가 다가왔다. 화장실 청소를 끝낸 김 씨는 빨간 리스킹 걸레로 바닥 먼지를 쓸어냈다. 김 씨는 “직원들 있을 때 청소하다가 기름왁스에 미끄러질 뻔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에는 용역업체가 출근 전에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바닥 청소를 마친 김 씨는 유리에 묻은 손자국과 엘리베이터 8대의 먼지를 닦아냈다. 마지막으로 탕비실을 정리하는 걸로 출근업무를 마무리하고 오전 8시 반부터 10시까지 휴게 시간에 돌입했다. 이 모든 일과가 여의도 빌딩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게 이뤄져야 한다.

오전 10시 이후에도 김 씨 업무는 쳇바퀴 돌듯 똑같았다. 근로계약서 상으론 오전 11시까지 일하고 오후 1시까지 휴게 시간이지만, 닦아도 닦아도 금방 더러워지는 화장실 청소, 핸드타월 교체, 거울에 묻은 물때를 지우는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금세 정오를 넘기기 일쑤다. 복도 양 끝 계단 청소는 덤이었다. 결국 김 씨는 직원들 점심시간에 아무도 모르게 청소한 뒤 낮 12시 20분이 돼서야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무려 1시간 20분 가까이 휴게 시간에 일을 한 것이다. 김 씨는 “내가 베테랑이라 그나마 40분 쉴 수 있는 거지, 다른 친구들은 1분도 못 챙겨 먹을 것”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오후 1시부터 퇴근 시간인 오후 3시 30분까지 똑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퇴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원청의 눈치와 하청의 갑질 사이에서 김 씨와 같은 청소노동자는 ‘공짜노동’ 속에 살아야 했다. 김 씨의 하루를 동행한 결과,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과 휴게 시간은 각각 6시간과 3시간 30분이지만, 실제론 8시간 20분과 2시간 10분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한 달 평균 50시간을 공짜 노동을 했는데, 임금으로 환산하면 44만 원에 달한다. 김 씨가 이렇게 주 5일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은 136만 원(세후 기준)이었다.

고된 노동에도 청소노동자들은 잠시나마 몸을 누일 수 있는 휴게 공간조차 변변치 못했다. 비상구 옆에 파란색 페인트로 칠해진 문짝을 열자 1.6㎡(0.5평) 남짓한 공간에 김 씨가 누워 있었다. 스티로폼에 전기장판과 전기밥솥이 있는 비좁은 공간, 김 씨만의 휴게실이었다. 김 씨는 “각 층의 폐창고를 개조해 휴게실을 만들었다”며 “지하 공동휴게실은 너무 비좁고 냄새 나서 차라리 지상의 창고를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

긴 글 쓰기

1. “학교 청소는 학생들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 조건에 맞게 글로 써 보세요.

[조건]

- 찬반 혹은 제3의 대안 등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세요.
- 입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3차시 ◆ 제 세탁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내용 확인하기

1. <제 세탁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을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이 글에 인용된 호메로스의 《오뒷세우스》를 통해 글쓴이가 짐작한 내용은 무엇인가요?(45~46쪽)

(2) 글쓴이가 자취를 시작한 후 오랫동안 빨래를 하면서 깨달은 바는 무엇이었나요?(50~54쪽)

(3) 글쓴이가 ‘세 가지 빨래’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빨래”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4-55쪽)

생각 넓히기

1. <제 세탁 인생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글쓴이가 “중학생 때까지는 호메로스와 다름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우리 집의 세탁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리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3) “반복하는 일상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글쓴이의 표현과 관련해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긴 글 쓰기

1.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세탁기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가사 부담이 줄지 않은 원인을 진단해 보고, 아래 조건에 맞게 해결책을 제시해 봅시다.

(...)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진정한 의미의 혁신인 자동세탁기가 보급된다. 빨랫감을 넣고, 다이얼을 조정하면, 행굼과 탈수까지 알아서 하는 세탁기였다. 미국 시장에 자동세탁기를 처음 선보인 벤딕스는 1947년 100만 번째 세탁기를 생산하고, 1950년에는 200만 대를 생산하는 데 이른다. 이를 추동한 광고들은 “가사노동을 가정 가꾸기”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쏟아냈다.

‘전기하인’이 단추 한 번만 누르면 ‘허드렛일’로부터 주부들을 해방시켜준다는 것이다.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가정적인 엄마들’이 집 안에서 편리함과 청결함을 만끽하는 이미지가 지면을 덮었다. 그사이 전기세탁기는 전자동세탁기로 진화되었고, 자동건조기도 생산됐다. 심지어 분말비누와 세탁 후 다림질이 필요없는 옷까지 등장했다. 그럼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집안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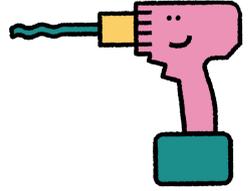
전기세탁기가 힘든 빨래를 힘이 덜 들게 하고 과정을 좀 더 단순화시킨 것은 사실이었다. 문제는 20세기가 지나면서 개인위생과 더불어 청결 기준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산업화 이전에는 다들 옷이 별로 없었고, 힘든 빨래를 자주 하지도 않았다. 또한 셔츠를 규칙적으로 갈아입어야 하고, 침대 시트도 몇 장씩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여자들은 빨래를 더 많이 하게 됐다. 그리고 이런 일을 자주 하지 않으면 게으른 주부로 ‘죄책감’마저 느끼게 됐다.

결국 빨래의 고통은 사라졌지만, 헛수가 늘어나면서 세탁에 드는 총시간은 오히려 증가하게 됐다. 진공 청소기, 냉장고 등 다른 가전제품도 마찬가지였다.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가전제품들의 사용과 관리 책임 역시 가정의 수호자로 역할 지어진 여성들 일거리로 계속해서 늘게 된다.

[조건]

-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세요.
- 문제의 원인에 맞게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4차시 ♦ 사서 쓰기와 내가 만들기 사이의 균형잡기



내용 확인하기

1. <사서 쓰기와 내가 만들기 사이의 균형잡기>를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글쓴이가 '만들기'를 중요한 습관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인가요?(59~61쪽)

(2) 글쓴이가 세운 만들기의 기본 순서에 따라 모니터 받침대를 만든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62쪽)

순서	단계	모니터 받침대 만들기
1	구상하기	
2	도면 그리기	
3	재료 구하기	
4	만들기	

(3) 글쓴이가 만들기를 할 때마다 생각해 보는 다섯 가지 지침을 정리해 봅시다.(70~72쪽)

	지침의 내용
1	
2	
3	
4	
5	

생각 넓히기

(사서 쓰기와 내가 만들기 사이의 균형잡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 (1)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들어 본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만약 그러한 경험이 없다면 왜 그렇지 생각해 봅시다.

- (2) 글쓴이는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자연 재료를 활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고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그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이 주목받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10명 중 1명. 매년 졸업하는 중·고등학생들이 후배에게 교복을 물려주는 비율이다. 3년간 제 뭇을 한 후 버려진 교복 대부분은 소각장으로 보내지지만, ‘심폐소생’을 거쳐 새 생명을 얻는 곳이 있다. 폐교복을 재활용해 가방, 필통 등 소품으로 재탄생시키는 ‘리버드(RE:BUD)’다.

리버드는 업사이클링으로 유명한 스위스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프라이탁은 한 형제가 비 오는 날에도 가방을 젖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방수천을 덮고 달리는 트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든 브랜드다. 손근열 리버드 대표는 “프라이탁이 유명해진 이유는 비가 많이 오는 환경에 맞는 제품을 그 나라에서 많이 버려지는 제품으로 제작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리버드도 국내 상황과 환경을 파악하려 했고, 고민 끝에 폐교복을 새 제품으로 제작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근 리버드의 취지에 공감한 사람들의 ‘교복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버려진 교복이 아닌 새 교복이 기부 물품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손 대표는 “수년간 교복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시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을 진행하거나, 몇 년간 묵혀뒀던 재고를 정리하면서 기부 문의를 하는 점주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지난 3월에는 서울 노원구 상원중학교에서 교복을 대량 기부했다. 그동안 졸업생들이 후배들에게 교복을 물려주는 활동을 진행해 왔지만, 교복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버려질 수밖에 없어서다.

리버드 프로젝트는 의류 산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도 고려됐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폐수의 20%가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대표는 “의류 산업으로 인해 매년 9200만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매초 트럭 한 대 분량의 옷이 버려져 소각돼 환경을 파괴하는 탄소를 배출하지만, 누구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교복 입은 가방? ...재활용·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는 ‘기특한 교복’>, 《중앙일보》, 2021.08.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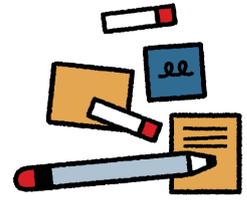
긴 글 쓰기

1. 나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상해 보고, 만들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봅시다. 그리고 다음 조건에 맞게 글을 써 봅시다.

[조건]

- 자신이 구상한 물건에 대한 제작 동기와 모양 및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만들기 계획에 재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5차시 ◆ 작은 ㄷ자 안에서 예술 회사 꾸려 나가기



내용 확인하기

1. <작은 ㄷ자 안에서 예술 회사 꾸려 나가기>를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글쓴이가 책상을 주문 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77~78쪽)

(2) 글쓴이의 책상 양쪽 서랍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80~83쪽)

왼쪽	오른쪽

(3) 글쓴이가 클리어 파일에 문서를 실물로 모아 놓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83~86쪽)

생각 넓히기

1. <작은 ㄷ자 안에서 예술 회사 꾸려 나가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글쓴이가 “한 번의 공연을 할 때도, 한 편의 원고를 쓸 때도 계약서를 확실하게 쓰고 일을 시작”하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달부터 프리랜서를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상당수의 예술인이 계약서 없이 일해온 탓에 활동 이력과 소득을 증빙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소득 증빙의 기준을 다변화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그림작가로 일하는 도모(27) 씨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와 작업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며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가 돼서야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용노동부 블로그의 ‘긴급고용안정 지원금-프리랜서’ 편에는 자신이 수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금의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

자는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며 “기준이 복잡하다는 예술인들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원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월별로 정산된 통장 내역이나 애플리케이션 캡처, 사측에서 제공한 노무 사실 입증서류 등을 제시하면 공문에 준해 처리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명확한 근로계약관계 없이 일해온 만큼 이들을 위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무관계를 허위로 부풀리는 것은 잘 가려내야겠지만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증빙 방식을 통해 정부가 구제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계약서 없이 일해온 예술계의 관행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프리랜서 고용지원금에도... 예술인은 사각지대>, 《서울경제》, 2020.06.26.

(2) 자신은 책상이나 사물함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는지 소개해 봅시다.

(3) 글쓴이가 예술가 외에도 “영업부장이고, 회계이고, 고객 만족 서비스 센터인 1인 다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긴 글 쓰기

1. 다음 기사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아래 조건에 맞게 글로 써 봅시다.

20일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유행하기 전 지역 예술인 5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8%가 창작활동 대가를 못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2.5%는 부당한 수익 배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술 활동 때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46.3%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37.2%가 전혀 모르고, 40.0%는 잘 알지 못했다.

한국예술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불공정행위 신고 상담센터와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센터도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개인소득이 200만 원 이하인 예술인이 60.0%에 이르며,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10.7%에 달했다. 비전업 예술인 비중이 44.4%나 되고, 40.5%는 전업 예술인이라도 프리랜서(22.8%)나 비정규직(17.7%)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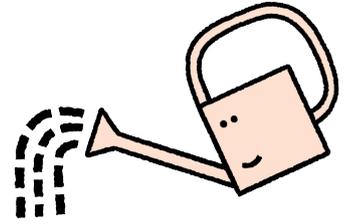
예술 활동을 토대로 안정적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술 활동 증명을 등록한 예술인은 29.0%였고,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획득한 경우는 13.3%에 불과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41.3%, 건강보험 25.4%, 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 10.3%, 직장 산재보험 27.2%, 고용보험 32.6%에 그쳤다.

출처: <대전 예술인 21.8% "창작활동 대가 못 받았다">, 《연합뉴스》, 2020.10.20.

[조건]

-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보세요.
- 문제의 원인에 맞게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6차시 ♦ 정신을 차려 보니 식물러가 되어 있었다



내용 확인하기

1. 〈정신을 차려 보니 식물러가 되어 있었다〉를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글쓴이가 집에 식물을 들여놓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95~96쪽)

(2) 이 글을 바탕으로 식물에게 물을 주는 방법을 적어 봅시다.(99~102쪽)

(3) 식물에게 통풍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적어 봅시다.(103쪽)

생각 넓히기

1. 〈정신을 차려 보니 식물러가 되어 있었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식물을 키우는 것이 나에게도 쉽표가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식물을 가까이하면서 좋은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 보고, 친구들과 경험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3)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식물 키우기가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기성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원예 문화가 ‘식집사’(식물+집사)라는 이름으로 2030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원예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대비 2030의 식물 구매가 최소 2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을 없애고자 반려식물을 찾는 젊은 세대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평소 우울증을 앓던 대학생 이채은(20) 씨도 식물을 키우며 이를 극복했다. 지난해 재수를 하면서 우울증이 심화된 이 씨는 인테리어로 집 안에 식물들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씨는 “반려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 그 자체로 위로가 된다”며 “초록색이 주는 안정감과 아름다움의 매력에 반했다”고 말했다.

식집사 문화는 일상에 지친 2030에게 활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최윤주(27)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렸다. 업무에 지친 탓인지 휴대전화를 꺼 놓고 사람들의 연락을 회피했다. 무력감에 집에서 누워만 있던 최 씨는 부모님과 함께 구입한 ‘아글라오네마’를 돌보며 활력을 얻었다. 최 씨는 “일어나면 물을 주고 등을 켜 줘야 하고, 환기를 하는 등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생활 방식이 교정된 느낌”이라며 “무기력감에 빠진 나를 강제로 이 친구가 일으켜 준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식물이 우울증을 감소시킨다는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이손선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회장은 “식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손상 환자에게서 나오는 뇌파인 델타파가 감소하고 뇌에 안정감을 주는 알파파가 활성화된다”며 “식물은 우울감을 느끼는 이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신체 재활의 기능을 한다”고 말했다.

출처: <쑥쑥~ 자라는 모습 보며 ‘풀멍’... 식물에 위로받는 나는 식집사>, 《서울신문》, 2021.0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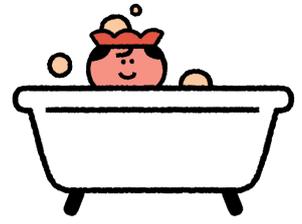
긴 글 쓰기

1.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우울감, 외로움, 무기력 등)에 대처하는 자신의 방법을 아래 조건에 맞게 글로 써 봅시다.

[조건]

- 코로나로 인해 겪었던 심리적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신의 방법과 그 효과를 제시하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7차시 ♦ 작은 사람과 함께 넓어진 나의 세상



내용 확인하기

1. <작은 사람과 함께 넓어진 나의 세상>을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군대를 다녀오기 전과 후에 거주 공간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110~112쪽)

다녀오기 전	다녀온 후

(2) 글쓴이가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온 아이를 처음 씻기던 순간”이 어땠는지 요약해 봅시다.(114~116쪽)

(3) 글쓴이가 “아이가 만들고 줌고 가져온” 짐들을 버리지 않기를 잘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 때문 인가요?(119~121쪽)

생각 넓히기

1. <작은 사람과 함께 넓어진 나의 세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글쓴이가 “사는 게 끝없이 곱팡이가 피는 집을 닦는 일 같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아이가 커 가며 새로운 것들을 익혀 가는 과정에서 양육자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을 발표해 봅시다.

3) 다음 기사를 참고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사에 나온 방안 외에도 어떤 사회적 제도가 필요할지 발표해 봅시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바로면접 알바업 알바콜이 2019년 9월 20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육아휴직'을 주제로 회원 11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남성 직장인은 5명 중 1명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상사 눈치'가 22.7%, '회사 분위기'가 22.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회사 사람 대부분 육아휴직을 안 쓰는 분위기'라고 답한 경우가 27.2%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답한 경우가 14.7%로 그 뒤를 이었으며, '경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8.7%, '사용 방법을 잘 모름'이 8.6%, '신청했지만, 회사에서 거부당함'을 이유로 든 경우도 6.7%나 되었다.

(...) 아빠의 양육이 자녀의 자신감과 창의성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는 점은 여러 연구로 확인되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통해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빠와 자녀의 유대감 형성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나아가 육아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는 '독박육아' 현상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직장인 여성의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우리나라가 당면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남성의 경우 60일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한다.

(...)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사용시 첫 60일간 통상임금의 지급이 이뤄지듯 남성 근로자에게 의무화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 수준의 수당 또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보험 법상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여전히 지급되더라도 실제의 통상임금액과의 차액은 사업주로 하여금 일부 보전하도록 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해 마련된 국가 및 지방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을 1개월간 의무화하는 한편 첫 한 달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더불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가 인정되는데 출산 휴가신청으로 자동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이 병행되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도 함께 제안한다. 그러면 근로자가 따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까지 또 신청 과정에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육아휴직제도가 이미 현행 법령에 의하여 제도화되었고, 도입 시점에 비하여 그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육아휴직제도가 단지 법전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각자의 일자리에서 당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현실에서 실행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출처: 유성연, <남성의 육아휴직, 혜택 아닌 권리로 인정하자>, 《미래한국》, 2020.0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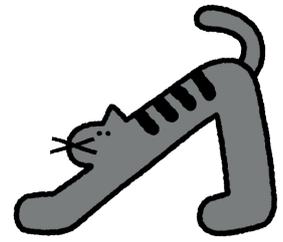
긴 글 쓰기

1. 누군가 자신을 돌봐 준 경험 중 가장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고, 조건에 맞게 글로 써 봅시다.

[조건]

- 돌봄을 받은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세요.
- 그러한 기억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8차시 ◆ 고양이의 집사라면 무릇



내용 확인하기

1. <고양이의 집사라면 무릇>을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글쓴이가 고양이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125~127쪽)

(2) 글쓴이는 “진짜 첫 고양이”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적어 봅시다.(129~133쪽)

(3) “다시는 고양이를, 동물을, 키우지 않을 거라고 결심”했던 글쓴이는 어떻게 다시 고양이를 키우게 되었나요?(133~136쪽)

생각 넓히기

1. <고양이의 집사라면 무릇>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사랑의 대상 또한 학습된다”는 글쓴이의 표현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내가 나를 키우는 것도 힘든 와중에 고양이까지 키울 순 없었다”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 (3)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마음, 먹이와 진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 배변과 목욕 등 동물에게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책임감 등이 필요합니다. 그 외 필요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긴 글쓰기

1. 기사를 참고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아래 조건에 맞게 써 봅시다.

(...) 연제구청이 설치하려던 길고양이 급식소는 가로 60cm 높이 50cm가량의 간이 구조물이다. ‘캣맘’ 등 동물 애호가들이 길고양이를 위한 사료와 물 등을 이곳에 넣어둘 수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인 박 모(49) 씨는 “길고양이가 몰려들면 밤낮으로 울어대고 쓰레기봉투까지 파헤쳐 주민과 아파트 관리 직원의 피해가 볼 보듯 뻔한데, 연제구청은 입주인 전체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며 “분명 주민 피해가 발생할 텐데 동물 보호라는 명분만 들이대니 답답할 따름이다. 고양이 동물권은 중요하고 주민 생활권은 중요하지 않으나”고 토로했다. 연제구청 측은 쏟아지는 민원에 “해당 아파트에 계획된 급식소 설치 사업을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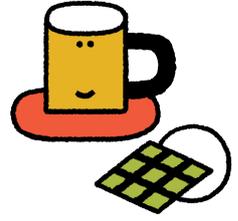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업은 부산시가 국·시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20개의 급식소를 설치했고, 올해는 24개의 급식소를 추가로 설치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연제구청과 북구청 등 일부 기초지자체는 별도로 구비를 투입해 추가 급식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무분별하게 이곳저곳에서 먹이를 나눠 주기보다, 급식소를 정해 길고양이를 모으면 주민 불편도 막고 고양이도 보호한다는 것이 사업의 취지이다.

그러나 길고양이가 거주지 인근으로 몰려들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급식소 설치에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급식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박혜경 대표는 “민간이 아닌 행정기관이 급식소를 설치할 경우, 먹이 주는 장소가 훼손될 가능성이 줄어 고양이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다”며 “급식소 설치사업을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고,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건]

- 찬반 혹은 제3의 대안 등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세요.
- 자신의 입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9차시 ♦ 집과 함께 숨 쉬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남길 것



내용 확인하기

1. <집과 함께 숨 쉬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남길 것>을 읽으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글쓴이가 “대부분의 끼니는 장을 봐서 해 먹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145~146쪽)

(2) 이 글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냉장고에 채소를 보관하는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149쪽)

(3) 이 글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책장을 정리하는 방법을 요약해 봅시다.(151~152쪽)

생각 넓히기

1. <집과 함께 숨 쉬기 위해 버려야 할 것과 남길 것>의 내용을 바탕으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1) 살지도 않을 집을 앱으로 검색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2) 다음을 참고하여 자신이 옷을 사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돌아봅시다.

(...) 옷 안 사기에 동참하는 이들 중 다수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꿔본다”라고도 했다. 미니멀리즘은 단순·간결을 추구하는 흐름을 뜻한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이승윤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옷 안 사기는 미니멀리즘 트렌드의 일환”이라며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눈에 잘 띄는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반면 건강식이나 인테리어 등 자신 혹은 집에 투자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미니멀리즘의 주된 특징인 ‘실용’과 ‘가짓수 줄이기’에 따라 정리와 수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희숙 공간미학 대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코로나19로 ‘강제 집콕’을 하면서 옷이 이렇게 많았나 깨닫는 사람이 늘었다”며 “본인이 좋아하는 옷을 선별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간 활용을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코로나궤 “새해 옷 안 사기” 선언, ‘정리’ 바람 몰고 왔다>, 《중앙일보》, 2021.02.13.

3) “살림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느낀 적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긴 글 쓰기

1. 글쓴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애정을 가지고 수집해 본 경험을 소개하는 글을 조건에 맞게 써 봅시다.

[조건]

- 수집하게 된 이유와 계기를 밝히세요.
- 수집의 과정과 수납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 1,000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